



룰 몰라도 룰루랄라~ 1000만관중 ‘홈런’

Cover Story

MZ 가세에 프로야구 역대급 흥행



한 편의점에서 출시한 KBO 포토카드. 세븐일레븐



1982년 출범 이래 사상 첫 1000만 관중 시대를 연 한국프로야구(KBO) 리그.

지난달 25일 잠실야구장을 직접 방문해 뜨거운 열기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에서부터 야구장까지 이어지는 유니폼을 입은 팬들의 행렬, 응원 문구가 적힌 화려한 피켓, 종종 울려 퍼지는 응원가까지.

이날 한화 이글스와 LG 트윈스 선수들의 몸을 사리지 않는 허슬 플레이까지 더해져 경기는 더욱 흥미진진하게 진행됐는데요. 일찌감치 좌석이 매진된 경기장은 팬들의 함성과 응원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올 시즌 프로야구는 총 720경기 중 221경기가 매진되었고 6개 구단이 100만 관중을 돌파하며 전성기를 맞고 있습니다.

야구장 방문은 10·20대 사이에서 가장 비 좋은 여가활동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난해 프로야구 경기당 평균 티켓 가격은 1만5000원으로, 영화나 콘서트 등 다른 문화생활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습니다. 한 10대 남성 야구팬은 “영화는 2시간 정도로 끝나지만, 야구는 길게는 4시간도 즐길 수 있어서 돈이 아깝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또 “조용한 영화관보다 응원가도 부르고 환호할 수 있는 야구장이 훨씬 더 재미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야구 콘텐츠 공유도

KBO 리그 인기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제까지는 야구 경기 영상을 특정 포털에만 업로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티빙으로 중계사업자가 바뀌면서 40초 미만 경기 영상을 SNS에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숏폼 콘텐츠들 만들어 공유하는 것이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KIA 타이거즈 치어리더들의 ‘뽀빠뽀빠춤’ 역시 이러한 변화 덕분에 SNS상에서 큰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KBO의 인스타그램 팔로어는 작년 12월 23만6000명에서 올해 9월 39만명으로 65% 증가했습니다. 유튜브 구독자도 같은 기간 9만8000명에서 22만6000명으로 131% 큰 폭 증가했습니다.

야구장에서만 즐길 수 있는 ‘야푸(야구 푸드)’ 문화도 프로야구 흥행 요소 중 하나입니다. 경기장 내에선 떡볶이, 닭강정 등 분식류뿐만 아니라 크림새우, 철판 삼겹살 등 일품 요리까지 판매해 많은 팬들이 경기를 보는 중간중간 간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잠실구장의 원샷치킨, 고척스카이돔의 크림새우, 창원 NC파크의 비어베트 등 구장별 대표 먹거리도 야구장을 찾은 이들의 눈길을 끕니다. 야푸 문화는 경기 외적으로도 즐길 거리를 제공해 야구 직관의 또 다른 매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김혜순 기자·박세윤 인턴기자

기록? 상관없어, 달리면 재밌잖아... '편러닝' 열풍



소곤소곤
우리들 이야기

1020서도 러닝문화 확산
'러닝 크루' 만들어 공유
건강·재미 동시에 만족
러닝화·운동복 판매 급증
아식스·뉴발란스·호카...
일상서도 필수템 등극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기록이나 순위에 상관없이 일상 속 뛰는 행위 자체를 즐기는 '편 러닝'족이 늘고 있습니다. 달리기를 즐기는 인구가 많아지면서 편 러닝은 전문 러너뿐만 아니라 취미와 여가로 달리기를 즐기는 일반인까지 아우르는 개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10·20대 사이에서도 러닝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러닝은 실내에서 벗어나 자연과 함께할 수 있는 가성비 좋은 운동으로 매력을 인정받으며 더욱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러닝은 단순 운동을 넘어 사람들을 연결하는 새로운 방식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편 러닝족은 혼자서 달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러닝 크루'를 구성해 달리는 취미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러닝 크루란 사람들을 모아 정기적으로 달리기를 즐기는 모임으로, 서로 운동 목표를 공유하고 격려하며 친목을 다지는 역할을 합니다. 전통 동호회보다는 느슨한 형태로 시간과 장소가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 즐겁게 달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동호회는 구성원과 주요 활동, 활동 일정 및 장소가 고정돼 있습니다. 반면 러닝 크루는 개인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선택해 러닝에 참여하기 때문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고 이에 따른 만족감도 높습니다. 편 러닝족은 러닝을 통해 일상생활 속 스트레스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과 어울리며 건강과 재미,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신의 러닝 기록과 사진을 공유하고 응원을 주고받으면서 러닝 크루의 인기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SNS에서 '러닝' '런스타그램' '러닝크루'를 검색하면 관련 게시글이 수만



아식스 '젤 벤체6 버치'.
아식스 인스타그램 캡처

건 나을 정도입니다. '나이키 런 제주 2024' '뉴발란스 2024 런 유어 웨이 서울', 한국해비타트의 '2024 815런' 등 러닝 행사도 활성화되면서 함께 행사에 참여하고 인증을 남기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러닝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관련 의류나 운동용품 매장도 호황입니다. 러닝에 대한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서 러닝화 등 제품 수요가 증가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실용적이면서 스타일리시한 러닝화 제품을 찾는 수요가 크게 늘었고 아식스, 뉴발란스, 호카 등 신형 스포츠 브랜드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

동안 나이키가 홀로 질주했던 운동화 시장에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아식스 운동화는 한때 '아저씨들이 신는 못생긴 신발'이라는 오명을 받기도 했지만, 최근 힙한 디자인과 기능성으로 다시 관심을 받고 있고 뉴발란스 러닝화 역시 편하고 추진력이 좋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많은 러너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아식스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80%나 올랐고 매출은 약 14% 증가했습니다. 뉴발란스의 '퓨어셀 SC 트레이너 v3'는 500명이 넘는 고객이 오픈런을 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고 출시 하루 만에 모두 매진됐습니다.

운동복 판매 역시 증가세를 보이며 러닝복을 일상복처럼 입는 '러닝코어족'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편안하면서도 세련된 스타일의 운동복은 러닝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필수 아이템이 됐습니다. 이러한 인기로 합입어스타일커머스 플랫폼 에이블리의 지난 8월 애슬레저(애슬레틱+레저, 운동과 여가) 카테고리 거래액은 전년 대비 495% 증가했으며 주문 수와 주문 고객 수도 각각 525%, 46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민성 인턴기자

경제공부 필수품
은·오프라인
서점서 만나세요



회장
발행·편집·인쇄인
장승준

등록번호 : 서울.다50736
발행간격 : 격주간
발행소 : 04627 서울 중구 퇴계로 190 매경미디어센터

경제경영연구소 이매일
구독 문의
광고 문의

teen@mk.co.kr
(02) 2000-2383
(02) 2000-2200

전공의 공백 장기화... 위기의 의료강국



연합뉴스



꼭 알아야 할
최신 뉴스

방황하는 전공의... 임용 대신 알바천국

전공의 공백이 8개월째에 이르면서 세계가 극찬하며 배우고 싶어했던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 2월 대통령이 정책을 발표한 이후 8개월이 지났음에도 필수 의료 회복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의대 정원 증원 갈등으로 전공의 공백이 장기화하며 의료 공동화가 우려되고 그 피해는 환자와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전공의 9016명이 사직하거나 임용을 포기했으며, 35%인 3114명이 다른 의료기관에 재취업했다고 합니다. 나머지 65%는 군 입대 준비, 해외 병원 취업 또는 비의료기관 진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공의는 돈을 벌기 위해 과외 아르바이트로

▶ NIE 준비하기

1. 공공의료와 민간의료 간 불균형이 의료비 상승에 어떤 영향을 줄지 조사해봅시다.
2. 전문인력 감소가 한국의 의료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3. 의료 파업을 둘러싼 전공의와 정부의 입장에 대해 알아봅시다.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전공의의 강도 높은 업무를 전문의들이 떠안으면서 이들 또한 피로가 쌓여 의료계를 떠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이든 '논의중' 한마디에 유가 5% 폭등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이란 정유시설 공격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유가가 5% 이상 급등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탄도미사일 공격을 감행한 후 이스라엘의 보복이 예고되면서 공급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3일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이란 공격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답했으며,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스라엘에 허가하는 것이 아니라 조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고,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와 북해산 브렌트유 선물 가격이 각각 5.15%, 5.03% 상승했습니다. 유

▶ NIE 준비하기

1. 유가 상승이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봅시다.
2. 원유 공급 차질이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충격과 각국의 대응 방안에 대해 조사해봅시다.

가가 하루 새 5% 이상 오른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격이 현실화된다면 유가가 배럴당 200달러 안팎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바이든 대통령의 '돌출' 발언이 시장과 증동에서 파장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9016명

사직 또는 임용을
포기한 전공의 수

200달러

이스라엘이 이란 석유 시설
공격할 경우 유가 전망치

1.6%

한국은행이 발표한
9월 물가 상승률

물가 1%대로 안정...내수 회복만 남았다

9월 물가 상승률이 3년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수출과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사상 최대로 늘었습니다. 지표는 긍정적이지만 소비와 건설 투자는 여전히 냉랭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9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1.6% 상승하며 2021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는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인 2%보다 낮은 수치로, 기준금리 인하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FDI는 올해 3분기까지 251억8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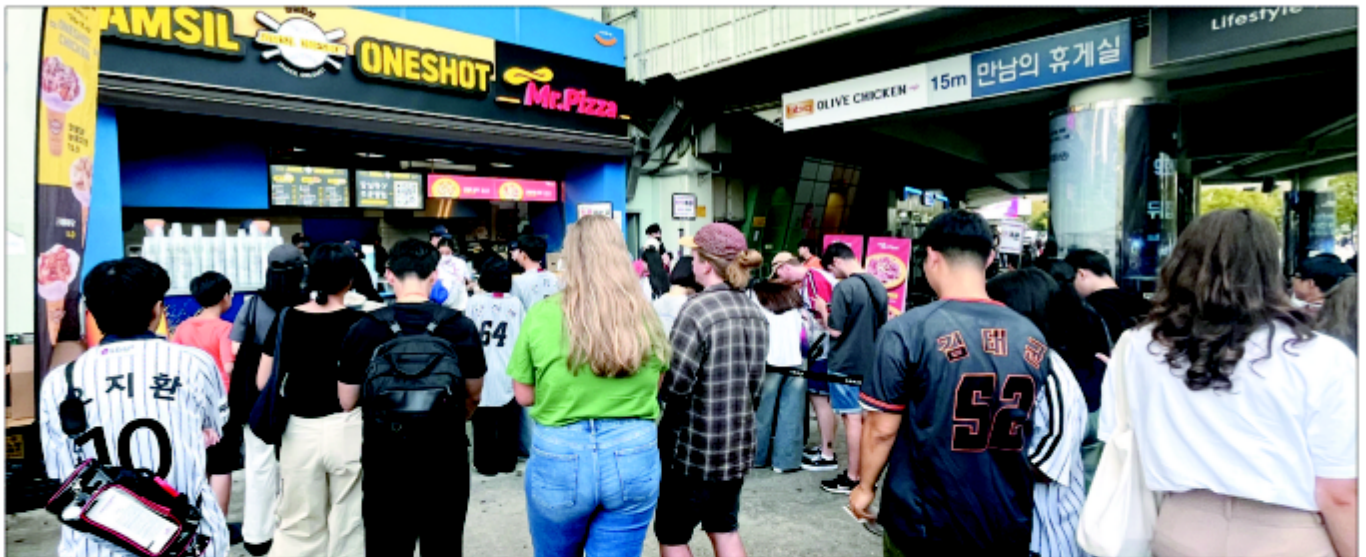
▶ NIE 준비하기

1. 금리 인하나 소비와 건설 투자 활성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봅시다.
2. 소비가 둔화된 상황에서 외국인직접투자 확대가 경제 회복에 미치는 효과는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5.2% 증가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일본의 투자가 급증한 것이 주요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중동 사태가 국제 유가와 에너지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선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재 스포츠’서 MZ 놀이터로...야구 산업도 후끈



지난달 25일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LG 트윈스전에서 관객들이 먹거리를 사기 위해 매점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

김도연 인턴기자

“야구 물은 잘 모르지만 야구장이 ‘뉴 좋은 맛집’이라는 친구 말에 따라와 봤어요!”

프로야구의 유례없는 흥행 열풍은 10·20대 젊은 층과 여성 팬들의 유입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전의 프로야구는 중장년 남성 팬들이 주로 즐기는 스포츠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야구장을 찾는 관객의 구성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NC 다이노스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창원 NC파크 홈경기 관객의 절반이 여성 팬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대 이하 비율이 30%를 넘어 가장 큰 소비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난달 25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한화 vs LG 경기에서 만난 20대 여성 박소연 씨는 “올해부터 야구장을 자주 찾게 됐다. 친구가 가져와서 봐줬는데 영화 등에 비해 가격도 합리적이고 재미있다”고 야구장을 찾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제 야구는 ‘아재’들의 스포츠라는 이미지를 벗고 하나의 엔터테인먼트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10·20대 여성 팬의 유입은 K팝 아이돌 팬덤 문화를 야구장으로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선수에게 커피차나 선물을 보내거나 그라운드보다는 더그아웃(선수들의 대기 구역)이 잘 보이는 자리를 예약하는 등 야구선수 개인에 대한 애정 표현을 중심으로 한 ‘야구선수 덕질’을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아이돌 콘서트에서나 볼 만한 대포 카메라가 야구장에도 등장했습니다. 선수들의 사진은 SNS를 통해 공유돼 새로운 팬을 유입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야구 선수들에게 아이돌 같은 팬덤이 생기면서 각 구단들은 아이돌 그룹이 할 법한 ‘포토카드 랜덤 뽑기’ 등을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최애’ 선수의 포토카드를 얻기 위해 10번 이상 뽑는 팬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한국 프로야구의 흥행은 단순히 스포츠 경기만의 성공이 아닙니다. 젊은 소비자들이 스포츠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즐기고, 이를 통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이들은 경기의 승패를 넘어서, 야구장 자체를 즐거운 놀이 공간으로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경험에 소비하는 젊은 여성 소비자들에게 야구 직관은 좋은 선택지”라며 “1만원대에도 관람권을 구할 수 있어 가격 접근성도 다른 여가 활동에 비해 뛰어난 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야구장을 찾는 팬들의 구성이 다양해지면서 구단의 스포츠 마케팅도 진화하는 모습입니다. 과거에는 경기장 내 광고판이나 유니폼 스폰서십 등 전자의 스포츠 마케팅이 주류였다면, 최근에는 구단 자체를 홍보하고 팬을 유치하기 위한 마케팅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MZ세대가 선호하는 캐릭터들과의 콜라보레이션 굿즈가 대유행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산 베어스는 인기 캐릭터 ‘망그러진 곰’과 콜라보를 통해 다양한 굿즈를 출시하고 망그러진 곰이 시구에 나서며 팬들의 환호를 받았습다. 야구 유니폼뿐 아니라 인형, 키링, 머리띠 등 다양한 종류의 콜라보 굿즈는 온라인 선공개 후 10여 분 만에 매진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5월, 한화 이글스는 GS리테일과 협업해 구단 특화 플래그십 스토어를 열기도 했습니다. ‘GS25×한화 이글스’ 플래그십 스토어 1호점은 한화 이글스의 상징 색상과 마스크트 ‘수리’ 조형물 등으로 꾸며지고 매장 바닥 디자인은 그라운드 콘셉트로 구현했습니다. 팬의 점 내에는 한화 이글스 전용 코너를 마련해 유니폼, 모자, 응원 도구 등 20여 종의 굿즈를 판매했습니다.

김도연 인턴기자

뉴 좋은 맛집·선수 덕질...
1만원대로 즐길거리 가득
젊은층·여성팬 비중 늘어

기업 스포츠마케팅도 탄력
색다른 경험 제공이 관건



“동물권 위해 필요” vs “유기동물 늘어날수도”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반려동물 인구 증가로 개 물림 사고, 동물 유기 등 사회문제가 발생하면서 ‘반려동물 보유세’(보유세) 도입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해 동물권과 반려인의 책임을 동시에 높이자는 취지입니다. 많은 반려인이 시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유기견 방지, 동물 학대 방지 등의 순기능을 기대하며 보유세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나 그로 인한 유기견 발생 등 해당 세금이 오히려 동물 학대의 원인이 될 것이라는 반대 의견도 존재합니다.



찬성합니다

▶ 반려인의 책임감 강화 및 동물권 보장

반려동물이 증가한 만큼 해마다 버려지는 유기동물의 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몇몇 사람은 책임감 없이 반려동물을 키우다가 싫증이 나거나 질병이 생기면 버리곤 합니다. 보유세가 무책임한 입양 및 파양 등의 문제를 막는 최소한의 장벽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보유세를 부과하게 되면 세금을 낼 만큼 반려동물과 살고 싶은지, 본인에게 책임질 능력이 있는지 등을 더 꼼꼼히 따져볼 것입니다. 책임감을 부여하고 능력이나 배경 부적격자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동물의 생활 여건 및 동물권이 향상될 수 있으며 동물 유기, 학대도 감소할 것입니다.

▶ 반려동물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많아지면서 개 물림 사고, 동물 유기, 공공시설 훼손 등 다양한 문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119구급대 개 물림 환자 이송 현황’에 따르면 개 물림 사고로 인한 병원 이송은 2022년 2216건, 일평균 6회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해마다 유기되는 동물 수도 약 11만 마리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국가가 동물을 위한 사업을 잘 펼치려면 세금이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사고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반려동물 보유자가 부과하는 보유세로 충당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조사에 따르면 작년 유실·유기 동물 구조·보호 비용을 포함한 동물보호센터 운영 비용은 총 294억8000 만원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직간접 비용까지 고려한다면 결코 적은 돈이 아닌데요. 이 같은 비용을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시민들까지 부담하는 상황은 불공정하며 반려인에게만 세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이의있어요

▶ 경제적 부담에 따른 반려동물 유기 위험

경제적 부담이 생기게 되면 반려동물을 오히려 등록하지 않거나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사람이 더 늘어날 것입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비용은 월평균 약 13만원입니다. 이는 실생활 비용만 포함한 것으로, 만약 반려동물이 아프기라도 한다면 적게는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까지 엄청난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런 비용에 더해 세금까지 납부하게 된다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에 대한 부담은 점점 커지게 되고, 이는 반려동물을 숨기거나 유기하는 상황을 야기할 것입니다. 유기동물 문제를 해결하려면 산업 규제가 아니라 마당개의 중성화 수술과 같은 현실 맞춤형 정책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 반려동물 보유세 기준 및 방법의 모호성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 등 6종만 반려동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과세 대상을 개와 고양이로 한정할지, 다른 동물에게까지 확대할지가 모호합니다. 세금을 정확히 부과하려면 마당개나 잡종견, 품종견의 분류도 이뤄져야 합니다. 잡종견도 반려동물에 포함해 세금을 부과할 것인지는 의의 필요하다는 것이죠. 나라에 반려견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만든 반려동물등록제조차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현 상황 속에서 반려동물의 보유 상태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등 세부 기준이 부족해 과세 실효성에 의문이 듭니다.

반려동물에게서 연계되는 각종 사회문제의 근본적인 해결과 개선을 위해서라면 반려견 교육, 동물병원 혜택, 입양자 교육 등이 실시되어야지, 단순히 보유세를 물리는 것은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장해린 인턴기자



1

세금이 책임감 키울까
경제적 부담 키울까

2

반려동물 정책 비용
모두의 세금 써야하나

3

모호한 반려동물 기준
어디까지 인정해야

용돈이 자꾸 사라진다면? 이름을 붙여주세요

Q.

용돈을 받아서 지갑에 넣어둔 후, 며칠 지나서 보면 돈이 감쪽같이 사라지곤 했어요. 누가 가져갔나 싶었죠. 근데 제가 쓴 거더라고요. 울 초, 제 고민을 들던 친구가 제안을 하나 했어요. 지갑에 있는 돈 3만원 중 1만원을 두 번 접어 학생증 뒤에 넣어두고, 1만원은 '비상금'이라고 정하라고요. 밀쳐야 본 전이란 생각으로 1만원을 접어서 학생증 뒤에 넣었습니다. 뭘 사 먹고 싶어도, 누군가가 빌려달라고 해도 '이건 비상금이지'라는 생각에 쓰게 되지 않더라고요. 반년 넘게 지난 지금, 아직도 그 1만원은 제 학생증 뒤에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이모가 놀러 오셨다가 주신 5만원은 정말 금세 쓰고 말았어요. 돈은 모두 같은 돈인데, 이런 차이가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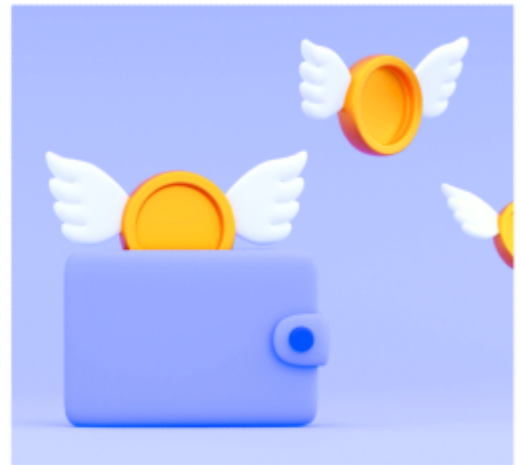


김나영 선생님의
쉬운 경제

A.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하곤 해요. 정기적으로 받는 월급 외에 예기치 못하게 생긴 돈은 더 쉽게 쓰게 되더라고요. 백화점 행사에서 우연히 상품권 받았던 날, 바로 세일하는 선글라스를 사 들고 왔거든요(심지어 돈을 더 보태서 산 거였어요). 누구나 이런 경험 있을 거예요. 부모님께 매달 받는 용돈보다 친척들로부터 예상치 못하게 받은 용돈이나 세벳돈 등을 좀 더 쉽게 쓰게 되잖아요. 학생증 뒤에 접혀 있는 1만원이나, 친척 어른이 주신 1만원은 분명 같은 가치의 돈인데도 우리는 다르게 느끼는 겁니다. 왜 그런 걸까요?

학창 시절, 보고 싶던 공연이 있었어요. 티켓 가격이 2만원이었어요. 친구랑 함께 가기로 했는데, 그리 인기가 많은 공연은 아니어서 당일 공연장에 와서 티켓을 사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티켓을 사려고 현금을 준비해 가져갔죠. 그런데 지갑을 열어보니 돈이 없어진 거예요. 딱 티켓 가격 2만원이 사라졌습니다. 다행히 지갑 안에 3만원이 남아 있어, 티켓을 살 수는 있는 상황이었어요. 돈이 없어진 게 아깝긴 했지만, 이왕 공연 보러 갔는데 그냥 돌아오고 싶진 않더라고요. 남은 3만원 중 2만원을 꺼내 티켓을 샀습니다. 제 친구는 미리 예매하고 티켓을 미리 배송받아두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도 오는 길에 티켓을 잃어버렸습니다. 가방을 탈탈 털어봤지만 티켓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 친구도 현장에서 티켓을 다시 살 수 있었어요. 지갑 속에 3만원이 있었고요. 하지만 친구는 티켓을 또 살 수 없다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티켓을 사는 데 이미 돈을 2만원 썼는데, 또 티켓 값을 낼 수 없다는 게 이유였어요. 이런 현상을 연구한 학자들이 있어요. 대니얼 카너먼(Daniel Kahneman)과 아모스 트버스키(Amos Tversky)가 함께 위와 유사한 상황을 가정하고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어보니 돈을 잃어버렸을 때는 88%의 사람들이 티켓을 구매하겠다고 했지만, 티켓을 잃어버렸을 때는 46%의 사람들만 티켓을 재구매하겠다고 했어요. 똑같이 2만원의 가치를 잃어버린 셈인데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사람 마음속에는 가계부가 있어서 사용 항목마다 돈에 이름표를 붙여주고 있어요. 내가 받은 용돈 중 간식비 20%, 문화비 20%, 게임콘텐츠 10%, 비상금 10%... 하는 식으로요. 돈을 잃어버린 경우는 아직 티켓에 돈을 지출했던 건 아니기에 티켓을 구매하는 비율이 높지만, 티켓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이미 문화비로 돈을 지출했기에 재구매를 안 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음속 가계부는 항목별로 돈에 이름표를 붙여두고, 항목별 지출 금액을 고려하게 되는데, 이를 '심적 회계(mental accounting)'라고 부릅니



게티이미지뱅크

다. 심적 회계는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하기도 하지만, 적절하게 활용하면 스스로 지출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심적 회계를 활용해 스스로 지출을 조절하는 팁! 알려드릴게요. 첫째, 목표자금이 있으면 미리 때어 저축하는 거예요. 3개월 후 갈 콘서트 티켓을 사기 위한 돈, 5년 후 대학생이 되어 배낭여행을 하기 위한 돈 등 목표를 이루기 위한 금액은 매달 용돈을 받으면 미리 때어 저축하는 거죠. 용돈을 통장으로 받는다면, 정기적금 통장으로 일정 금액이 나가도록 자동이체를 해두어도 좋습니다.

둘째, 공돈도 심적 회계의 한 항목으로 만드는 겁니다. 공돈이 들어왔을 때 막 쓰게 되는 건 심적 회계에는 없던 항목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원래 계획에 없던 돈이기에 어차피 없어져도 된다는 생각이라, 막 쓰게 되는 겁니다. 공돈이 생겨 그 돈으로 무언가 소비를 하려고 한다면, 그 액수의 돈으로 할 수 있는 다른 일들을 떠올려보세요. 아마 좀 더 신중해질 수 있을 거예요.

셋째, 용돈으로 지출하는 각 항목의 한도를 정하는 거예요. 간식비 3만원, 게임 아이템 1만원, 문화비 3만원... 하는 식으로요. 항목별로 소비가 한도를 넘지 않도록 조절을 하는 거예요. '게임 아이템에는 1만원까지만 지출한다' 정했는데, 1만원이 되면 지출은 더 이상 아이템에 쓰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누가 강제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스스로 정한 규칙을 용돈 관리 앱과 연결해서 정리해두면 편리합니다.

서울 양정중학교 사회과 교사



스스로 내손뚝기

용돈을 어떻게 모으고, 쓰겠다고 계획을 세워도 어느 순간 지름신이 강령하는 순간이 있어요. 저는 좋아하는 스타일의 옷이나 핸드백이 새로 나오면 자꾸 사게 되더라고요. 이럴 경우 사용분야별 한도를 스스로 정해두면 좋아요. 또 용돈의 일정 부분은 정기적금 등으로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구 불가능한 주식... 증권사 통해서만 살 수 있죠



미국DB



김형리의
금융의 역사

지난 호에서는 금융기관별 역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이번에는 그중 하나인 증권회사가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증권회사에 대해 잘 이해하면, 주식이나 금융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증권회사는 어떤 곳일까?

증권회사는 물건을 파는 상점과 비슷하다.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는 것처럼, 증권회사는 사람들이 주식이라는 특별한 물건을 사고팔 수 있게 도와주는 곳이다. 여기서 말하는 '주식'은, 한 회사의 아주 작은 조각을 의미한다. 만약 어떤 회사의 주식을 산다면, 그 회사의 작은 일부를 직접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주식은 우리가 흔히 접하는 물건과는 다르다. 우리가 장난감을 사게 되면 그 장난감은 집에 가져와서 내가 사용하는 물건이 된다. 하지만 주식은 그 회사 일부를 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회사가 돈을 더 많이 벌면 주식의 가치도 올라가고, 반대로 회사가 어려워지면 주식의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다. 주식을 사고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증권회사가 필요하다. 특정한 장난감을 사려고 할 때 그 장난감을 특정 상점에서만 판다면, 그 상점에 가서 장난감을 사는 것처럼 주식도 특정한 증권회사를 통해서만 사고팔 수 있다. 증권회사는 주식을 사고파는 사람들을 연결해 주고, 그 과정이 잘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증권회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까?

증권회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사람들이 주식을 사고팔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 만약 어떤 회사가 유망하다고 생각해서 그 회사의 주식을 사고 싶다고 해도, 그 회사에 직접 방문해 주식을 살 수는 없다. 그래서 증권회사를 통해 주식을 사는 것이다. 증권회사는 주식을 사고파는 가계처럼, 사람들이 쉽게 주식을 사고팔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곳이다.

사과나무를 예로 생각하면, 주식을 사는 것은 마치 사과나무의 작은 조각을 사는 것과 비슷하다. 증권회사는 사과나무의 작은 조각을 사고팔 수 있는 가게 역할을 한다. 증권회사에 가서 "사과나무 한 조각을 사고 싶어요!"라고 하면, 증권회사가 그걸 도와주는 것이다.

증권회사는 단순히 주식을 사고파는 것만 도와주는 게 아니다. 증권회사는 그 회사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준다.

그 사과나무가 얼마나 건강한지, 사과가 얼마나 잘 열리는지 같은 정보를 알려준다.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가 주식을 더 많이 살지, 아니면 팔지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증권회사는 주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람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주식 거래 외 증권회사의 역할은?

증권회사는 주식 거래뿐만 아니라 돈을 잘 불릴 수 있는 방법도 알려준다. 우리가 돈을 모아서 그 돈을 더 크게 벌리고 싶다면, 증권회사에 가서 그 돈을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 상담할 수 있다.

증권회사는 그 돈을 주식에 투자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다양한 금융 상품을 소개해준다. 은행에 돈을 넣고 이자를 받는 것처럼, 돈을 더 불릴 수 있는 방법들을 조언해주는 것이다.

증권회사는 기업이 더 크게 성장하기 위해 돈을 모으는 일도 도와준다. 작은 사과나무 농장이 더 큰 농장으로 성장하려고 한다면, 많은 돈이 필요할 것이다. 이때 증권회사는 그 농장이 필요한 돈을 모을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주식을 팔고, 그 주식을 사고파는 과정을 도와준다.

증권회사는 어떻게 발전하고 있을까?

옛날에는 주식을 사고팔려면 증권회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주문해야 했다. 직원에게 주식을 사고팔고 싶다고 말해야 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덕분에 훨씬 더 쉽게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온라인 쇼핑을 하듯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클릭 몇 번으로 주식을 살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과정이 정말 간단해진 것이다.

이제는 증권회사에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과 스마트폰 앱을 통해 증권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덕분에 주식을 거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주식을 사고파는 게 훨씬 더 쉬워졌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식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증권회사는 더 발전하고 있다.

증권회사는 사람들이 주식을 사고팔고, 회사에 투자하며, 돈을 불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다. 주식이라는 건 회사의 작은 조각을 소유하는 것이고, 증권회사는 그 조각을 사고파는 가게 같은 역할을 한다. 또 증권회사는 주식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람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 NH농협은행 퇴직연금고객관리센터



시사용어 CHECK

주문
증권회사의 주문이란, 투자자가 주식이나 금융 상품을 사고팔기 위해 증권회사에 요청하는 것.

기업
물건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제공해서 돈을 벌기 위해 활동하는 조직.

“고구려 땅 되찾겠다”…묘청의 서경천도운동

“올여름에 서경의 대화궁 근처 30여 곳에 벼락이 떨어졌는데, 그곳이 길지라면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런 곳에 가서 재난을 피한다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까?” (김부식)

“서경 임원역의 땅은 음양가들이 말하는 대화세(大華勢)입니다. 만약 이곳에 궁궐을 세우시면 천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금나라가 패배를 바치고 스스로 항복하는 것은 물론, 36개 나라가 모두 복종할 것입니다.” (묘청)



조인 강사의
한국사 탐방

서경은 언제부터 복진정책의 상징이 되었을까?

궁예를 몰아낸 왕건은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의미로 나라 이름을 ‘고려’라 부르고 가까운 시일 내 수도를 개경에서 ‘서경(옛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으로 옮길 것을 선언합니다. 태조 왕건은 고구려 옛 땅을 되찾기 위해 복진정책을 추진하였고 ‘훈요 10조’를 통해 훗날의 고려 왕들이 매년 100일 이상 서경에 머물며 정치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태조가 죽은 뒤 서경 천도가 다시 추진된 것은 그의 셋째 아들 정종의 즉위 직후입니다. 왕건 사후 왕위 계승 다툼에서 정종은 서경 주변 호족 세력의 전폭적인 지지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정종은 왕권 강화를 위해 서경유수 왕식렴과 평주의 박수경 도움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서경으로 천도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궁궐을 짓는 도중에 정종이 죽으면서 천도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서경을 중심으로 추진된 복진정책은 윤관의 여진 정벌로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예종 2년(1107년) 왕명을 받은 윤관은 발루반 등 고려 군대를 이끌고 지금의 함경도 방향으로 진출하여 여진족을 정벌하고 동북 9성을 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2년 뒤 여진족의 간청으로 동북 9성을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묘청은 왜 서경천도를 주장했을까?

여진족은 고려가 되돌려준 영토를 토대로 강력한 세력으로 성장합니다. 동북 9성을 돌려받은 여진족은 금나라를 세우고 20년도 안 되어 거란족을 멸망시키고 나아가 중국 송나라의 수도를 함락하며 송나라를 양쯔강 이남으로 몰아냈습니다. 강력해진 금나라는 고려에도 압박을 가하며 형제관계를 요구한 데다 ‘군신관계’까지 바꿨습니다.

20여년 전만 해도 부모의 나라로 고려를 섬겼던 여진족이 사대할 것을 요구했다는 소식에 고려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고 분노하였습니다. 당시 고려의 집권세력 ‘문벌귀족’은 음서제도와 공음전 제도를 통해 안정적으로 정치권력을 거의 독점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문벌귀족의 대표였던 경원 이씨 ‘이자겸’은 자신의 권력 안정을 위해 굴욕적으로 금나라를 섬기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백관회의에서 대부분의 신하들이 금에 대한 사대를 반대하였으나 이자겸은 사대를 결정하였고, 이 무렵 금나라의 공격에 남쪽으로 밀려난 남송이 대규모 사신을 보내어 협공할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으나 이 역시 거절하였습니다.

왕보다 강력했던 이자겸은 결국 반란을 일으켰으나 부하의 배신으로 실패하였습니다. 이자겸의 난을 통해 개경의 문벌귀족세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왕(인종)은 적극적으로 서경 세력과 손잡게 됩니다. 정치상, 백수한, 묘청 등 서경 세력은 당시 유행하던 풍수지리설(산세와 지세 등을 판단하여 이것을 인간의 길흉화복에 연결



개경의 고려 왕궁 터

김성웅 전 독립기념관장

하는 설)을 내세워 수도를 개경에서 서경으로 옮기자고 주장하였습니다.

국제 정세가 다시 한번 크게 변합니다. 승승장구하던 금나라가 송나라 명장 약비 등의 반격으로 여러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더 이상 고려에 강력한 압력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인종 8년 이후 금나라의 위협이 크게 줄어들자 인종은 금나라를 자극하는 서경 천도에 소극적으로 변했고, 결과적으로 김부식을 비롯한 개경파 문벌귀족이 득세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불리한 상황을 파악한 묘청 등 서경 세력은 강제로 서경 천도를 추진하기 위해 반란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김부식 등 개경파 문벌귀족들에게 1년 만에 식량 부족으로 진압되었습니다.

신채호는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을 왜 강조했을까?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이 실패한 뒤 김부식을 비롯한 개경의 문벌귀족들은 공식적으로 고구려계승의식과 복진정책을 포기합니다. 고려를 안정적으로 장악한 문벌귀족에게 북쪽의 강력한 북방민족과 싸우는 복진정책은 어쩌면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복진정책을 포기하려면 고구려 계승 의식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고구려의 옛 땅을 되찾기 위해 복진을 했던 것이기에 고구려 계승을 유지하면 복진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김부식은 이때부터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한 것이 아니라 남쪽의 신라를 계승했다는 ‘신라 계승 의식’을 강조합니다.

김부식은 묘청의 난을 진압하고 신라 계승 의식을 보여주기 위해 그 유명한 ‘삼국사기’를 썼습니다. 구한말 역사학자이자 독립운동가 신채호는 이때 우리 역사가 크게 변했다고 주장합니다. 원래 고구려, 발해 등 강력했던 우리 민족의 역사가 자주적인 묘청이 사대적인 김부식에 의해 패배하면서 약해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신채호는 그의 책 ‘조선상고사’에서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을 ‘지난 1000년 우리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강남대성학원 강사·전 이화여고 역사교사



- 1 고려라는 국호엔 어떤 나라를 계승하려는 뜻이 있나요?
- 2 김부식이 신라계승 의식을 갖고 집필한 역사서는?
- 3 조선상고사에서 서경천도운동을 강조한 독립운동가는?

서해에서 낚시를 하며... 송고한 석양을 낚았다

전북 군산

충남 태안, 보령, 서천을 지나 서해 리아스식 해안선을 오른쪽 옆구리에 낀 채 군산으로 가는 길, 가을빛으로 고즈넉한 하늘과 바다를 한참 바라보았다. 만 나이로도 이제 마흔, 저기 낚싯대는 건 내 청춘의 마지막 파도가 아닐까. 생일을 자축하러 가는 여행이 마치 한 시절과 작별하는 길처럼 애뜻하다.

마음이 허전하면 몸도 헛헛해진다. 허기를 달래기 위해 군산에 도착하자마자 찾은 곳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빵집 이성당이다. 해방 직후인 1945년 9월에 개업해 79년째 영업 중이다. 시그니처인 단팥빵과 야채빵 그리고 오징어먹물소금빵을 사서는 바로 옆 이성당 카페에 아이스커피와 함께 맛있게 먹었다. 갓 구워낸 따뜻한 빵과 차가운 커피의 조합은 늘 옳다. 배고픔이 해소되자 마음의 허전함도 사라졌다. 나는 언제 상념에 빠졌었느냐는 듯이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나라는 인간이 이토록 단순하다.

이성당 바로 근처에 근대화거리가 있다. 근대화거리 초입에는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 배경인 초원사진관이 있다. 1998년에 개봉한 영화의 아름다운 장면들을 떠올리자 시간 여행이 시작된다. 아기자기한 골목들과 일본식 가옥들을 지나다 보면 시간의 타래도 이리저리 뒤영킨다.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은 호남평야의 곡창지대를 확보하고, 서해안 황금어장을 차지하기 위해 군산에 일본인 주거지와 항만, 철도 시설을 지었다. 어업을 비롯한 각종 산업의 호황으로 부자가 된 일본인들은 이곳에 여관과 술집 등을 열었다. 1945년 패망 직후 그들은 떠났지만 흔적은 아직 남아 있다.

동해도 근사하지만 때로는 서해만이 가진 '쓸쓸한 아름다움'이 사무치기도 한다. 고요하고 내밀한 휴식이 필요할 때면 나는 신선들이 노닐었다던 선유도로 간다. 16개 섬이 모여 있는 고군산군도의 섬 중 하나로 연륙교를 통해 육지에서 쉽게 갈 수 있다. 선유도를 포함한 고군산군도 해역은 그야말로 황금어장이다. 광어, 우럭, 농어, 삼치, 민어, 백조기, 참돔, 감성돔, 장대, 쥐노래미, 갑오징어, 주꾸미, 문어 등이 계절을 달리하며 낚시인과 행락객들의 손맛과 입맛을 돋운다. 낚시하기에 좋은 섬이지만 그냥 여행하기에도 아름다운 섬이다. 트레킹도 좋고, 캠핑을 즐기기에 적당하다. 이날은 물고기보다 노을을 낚기로 했다. 동해에 장엄한 일출이 있다면 서해엔 송고한 일몰이 있다. 숨을 들이마시니 노을이 함께 몸으로 들어온다. 나는 이런 노을을 마실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 황홀한 금빛 석양 속에서 갈매기들이 역광의 그림자로 지워질 때, 노을을 사랑하는 사람은 노을의 일부가 되어 함께 아름다워진다.

파도 소리를 듣다 보니 노을이 있던 자리엔 어느새 쪽빛 어둠이 물들었다. 바닷바람을 맞으면 몸속에도 바람이 든다. 배가 고프다는 얘기가. 이름도 정겨운 '토박이맛집'을 찾았다. 더 정겨운 이름의 '한세월토박이민박'과 함께 운영 중인 식당이다. 노부부께서 장사하는데 생선회와 바지락탕, 꽃게탕, 매운탕 등을 주력으로 한다. 꽃게탕과 생선구이 그리고 소라속회를 주문했다. 제철 꽃게가 들쭉 들어간 꽃게탕이 상에 오르자 친구와 나는 동시에 '우와' 하는



이병철 시인의 여행 스토리

탄성을 뱉었다. 실팍한 꽃게에 살이 딱 차다 못해 흘러넘쳤다. 이 통통한 살을 껍질에 가두느라 꽃게도 참 힘들었겠다. 쫄깃쫄깃 탱글탱글 살살 녹는 게살 맛에 취해 음미고 뒤고 허겁지겁 게 다리를 빨아 먹었다.

게살 한입 먹고 얼큰한 국물 한 숟갈 떠먹으면 입안에서 불꽃축제가 열린듯 맛의 폭죽이 평평 터졌다. 생선구이와 소라속회도 일품이고, 밀반찬도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이 맛이 좋았다.

파도 소리가 귓가에 자장가로 스며드는 한세월토박이 민박집에서 노을빛 꿈을 꾸는 내내 뜨끈한 아랫목에 등허리가 갓 구운 빵처럼 노릇노릇 익는 느낌이였다. 어느새 온돌방의 훈기가 바가운 계절, 군산에 가면 아랫목보다 더 뜨거운 노을이 있고, 노을보다 깊은 제철 해산물의 맛이 있고, 오늘을 겸손하게 돌아보게 하는 흘러간 시간의 흔적들이 있다. 그래, 가을엔 군산에 가야 한다. 이병철 시인



여행정보

군산에는 일본인들이 살던 적산가옥이 여러 채 있다. 특히 신흥동의 일본식 가옥은 일제강점기 군산의 포목상이었던 히로쓰가 건축한 것으로 개화기 일본 명문가의 고급 주택 양식이 그대로 보존돼 있다. 아름다운 건축물이면서 우리에게겐 수탈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게 한다. 군산 여행에는 다크투어의 의미도 있다.



점점 뜨거워지는데... 지금은 빙하시대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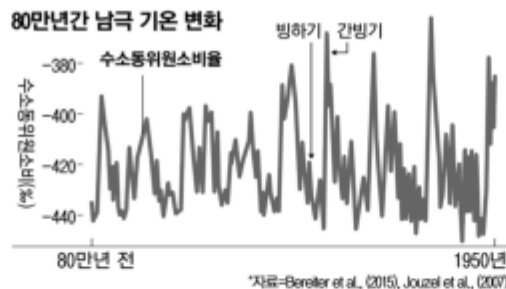
신진화 박사의
신비한 지구과학

아는 선배에게서 문자가 왔다. “지금 빙하기라며?” 이어 곧 또 하나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그럼 지구온난화가 아닌 거 아니야?” 익숙한 이야기였다. 하지만 그의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문자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내용이었고, 기후위기를 부정하는 기후회의론자들이 자주 거론하는 이야기이기도 해서 그의 말에 대답하려다 말았다.

우리는 사실 ‘빙하기’가 아니라 ‘빙하시대’에 살고 있다. 빙하시대는 수백만 년 동안 극지방과 고산 지역에 빙하가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시기를 뜻한다. 오늘날 남극과 그린란드에는 거대한 빙하가 발달해 있고, 히말라야와 알프스 같은 고산지대에도 빙하가 존재하므로 우리는 빙하시대에 살고 있다. 오늘날의 빙하시대는 약 260만년 전부터 시작한 것으로 이를 신생대 제4기 빙하시대라고 한다.

약 46억년의 지구 역사를 보면 극지방에 항상 빙하가 존재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빙하가 없었던 시기가 더 많았다. 지구가 처음 형성된 원시 지구 시기에는 소행성 충돌과 화산활동으로 발생한 온실가스 농도 상승 등의 이유로 지구는 매우 뜨거운 상태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소행성 충돌이 줄어들었고 오랜 시간에 걸쳐 지구는 서서히 냉각되었다. 그 후 지구 평균온도가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하다가 오늘날과 같은 기후 체계가 자리 잡게 되었다.

지구의 평균기온을 장기적으로 보면 현재는 극지방에 빙하가 있을 정도로 비교적 낮은 온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 사실을 놓고 보면 ‘지구온난화’라는 개념이 의문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남극 빙하에 기록된 지난 80만년 동안의 온도 변화를 보면 오늘날의 기후변화는 심상치 않다.



빙하코어에서 물의 수소와 산소 동위원소비를 분석하면 눈이 내린 당시의 기온 변화를 추정할 수 있다. 물 분자(H₂O)는 수소 원자(H)와 산소 원자(O)의 결합으로 형성된다. 같은 원자 번호를 가진 원소라도 질량수가 다를 수 있는데 이를 동위원소라고 한다. 쉽게 말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수소와 무거운 수소 또는 가벼운 산소와 무거운 산소로 나눌 수 있다.

이 물 동위원소비는 물순환 과정에서 변하게 된다. 저위도에서 증발한 수증기는 극지방까지 이동한다. 이동하는



게티이미지뱅크

동안 수증기는 구름의 형태를 거쳐 비나 눈으로 내리게 된다. 이때 무거운 원소가 가벼운 원소에 비해 더 쉽게 강수로 내리게 된다. 그 결과 극지방에 도달한 수증기에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원소가 남게 되고 이것이 눈으로 내려 빙하를 만든다. 빙하에 남아 있는 무거운 원소의 비율은 수증기가 거쳐온 지점들의 온도를 반영한다. 따라서 빙하의 수소와 산소 동위원소비를 분석하면 당시 눈이 내린 지역의 온도 변화를 추정할 수 있다.

남극 빙하를 이용해 복원한 물 동위원소비를 보면 지난 80만년 동안 상대적으로 추웠던 빙하기와 온화했던 간빙기가 약 10만년 주기로 반복되었다. 빙하기는 약 9만년으로 긴 반면 간빙기는 약 1만년으로 상대적으로 짧다.

오늘날 우리는 신생대 제4기 빙하시대에 속해 있다. 그 중에서도 약 1만1700년 전에 시작된 상대적으로 온화한 간빙기 시기를 보내고 있다. 그렇다고 지구온난화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말이다. 산업혁명 이후 인류 활동으로 인해 배출된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 농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지구 평균기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1년에 발표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6차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혁명(1850-1900년) 이전에 비해 약 1.09도 상승했다. 과거의 기후변화는 자연적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발생했다.

그러나 오늘날의 기후변화는 인류 활동으로 인해 불과 몇 세기 만에 급격히 일어나고 있다. 이는 지구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다. 자연적으로 돌아와야 할 빙하기를 인류가 지연시킬 가능성이 높다. IPCC 6차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경우 2100년에는 산업혁명 이전에 비해 지구 평균온도가 4.4도(3.3-5.7도 범위)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빙하기와 간빙기 간 온도 차이와 유사한 수준이다. 지구 평균온도의 상승을 멈추려면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한다. 인류 활동이 짧은 시간에 지구 평균온도를 빠르게 올렸듯이 그 상승을 멈추는 것도 노력에 달려 있다. 극지연구소 박사



- 1 우리는 빙하시대에 살고 있다.
- 2 물 동위원소 분석으로 온도 변화를 추정할 수 있다.
- 3 인류 활동이 지구 평균온도를 빠르게 올리고 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세금, 왜 필요할까



최병일 교수의 모든 것의 경제학

미국 화폐 가운데 가장 고액권인 100달러 지폐의 주인공은 '벤저민 프랭클린'입니다. 그는 다방면에 재주가 많았던 과학자이자 독립운동가였습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는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의 격언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회자되며 미국의 조세 당국인 IRS(Internal Revenue Service)의 위엄을 잘 나타냅니다.

세금은 역사의 중요한 갈림길에 자리하고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근대 시민혁명 가운데 변곡점적인 사건들은 세금과 관련이 깊습니다. 프랑스 루이 14세 시절의 재상이었던 장바티스트 콜베르는 "가장 바람직한 증세는 거위의 털을 뽑는 것과 같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국민을 거위에 비유한 것은 지금으로는 부적절할 수 있지만, 정부가 세금을 어떻게 걷어야 하는지를 상징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그의 격언이 저주가 되어 18세기 말 프랑스에서는 정부가 무리하게 세금을 걷다가 결국 시민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의 동학농민운동 역시 과도한 세금 징수와 탐관오리들의 부패로 인해 백성들의 삶이 너무나도 어려워진 결과로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금 징수는 왜 필요할까요? '보이지 않는 손'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주장한 애덤 스미스도 공공재의 생산을 위해서는 세금이 필요하다고 동의했습니다.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으로 인해 민간은 스스로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만큼 충분히 공급할 수 없습니다.

공공재의 특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 지난 주말 한강에서 불꽃놀이를 보셨나요? 매년 10월 한강의 불꽃놀이는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이런 불꽃놀이를 사람들이 돈을 내지 않았다고 해서 못 보게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돈을 내지 않은 사람도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을 '비배제성'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내가 불꽃놀이를 본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보는 불꽃이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비경합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불꽃놀이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갖는 공공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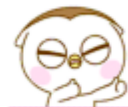
대표적인 공공재의 사례는 '국방 서비스'입니다. 나라가 국민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군대를 보유하고 국방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누군가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만 더 위험해지거나 덜 보호받을 수는 없습니다. 외국 군대나 테러 집단으로부터 재산과 생명을 보호받는 일은 모든 국민이 똑같이 누리

는 혜택입니다. 쉽게 말해 국방 서비스는 내가 돈을 내지 않아도 이 나라에 살고 있으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지닌 공공재입니다.

그렇다면 국방 서비스에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갈까요?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방 예산은 약 57조원에 달합니다. 전체 정부 예산이 약 638조원인 것을 감안하면, 국방 예산은 약 9%를 차지합니다. 이런 정보를 접한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국방비 부담이 크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만약 우리나라가 북한과 전쟁을 벌이게 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식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경기도와 서울의 집값은 또 어떻게 될까요? 현재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은 대략 2200조원에 달합니다. 만약 전쟁 혹은 전쟁 징후로 주식 시장의 가치가 30% 하락한다고 가정해도 약 700조원의 자산 가치가 물거품처럼 사라집니다. 또 서울과 경기 지역에 약 400만 가구의 아파트가 있는데, 전쟁으로 아파트 가격이 1억 원씩 하락한다고 가정하면, 무려 4000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실제 전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안보가 담보되지 않으면 재산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며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험을 연간 57조원의 국방 예산으로 억제하고 있다면, 사실상 매우 저렴한 비용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공공재를 생산하는데 '누가 그 비용을 지불할 것인가'라는 결정을 시장에 맡겨두면 마땅한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불꽃놀이를 후원한 대기업처럼 누군가 대신 지불해주면 좋겠지만, 국방 서비스는 너무나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민관이 감당하기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세금을 걷어 국방, 도로, 치안과 같은 필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는 그 대가로 얻는 이익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 비용을 지불하는 것에 거부감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는 내가 낸 세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집 근처에 큰 도서관이 생겨도 책을 읽지 않는 사람에게 는 불필요한 지출로 느껴질 수 있고, 반대로 주차할 자리가 없을 때는 '내가 낸 세금으로 왜 이런 불편을 겪어야 하나'라고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공재는 개인이 느끼는 혜택을 일대일로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의회에서 법으로 항목을 정해 이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강원대학교 교수



시사용어 CHECK

조세
국가를 유지하고 국민 생활의 발전을 위해 국민들의 소득 일부분을 국가에 납부하는 돈으로, 우리나라의 조세는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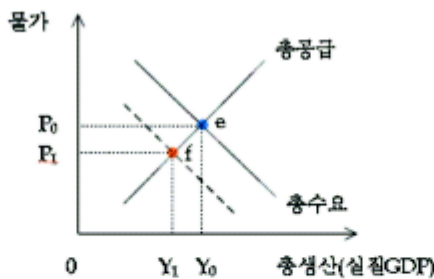
경기 침체에 필요한 재정·통화 정책은?



탄매경TEST
공부합시다

<문제>

최근 K국 경제는 소비 위축으로 인해 다음 [그림]처럼 국민경제의 균형이 e점에서 f점으로 이동했다. 다음 중 K국 정부나 중앙은행이 경기부양을 위해 취해야 할 적절한 경제정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그림] 총수요·총공급과 국민경제의 균형

<보기>

- ㉠ 정책금리 인상
- ㉡ 투자세액 공제 확대
- ㉢ 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
- ㉣ 실업급여 지급액 하향 조정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해설>

현재 K국 경제는 소비 위축으로 총생산이 감소($Y_0 \rightarrow Y_1$)하고 물가가 하락($P_0 \rightarrow P_1$)한 상황으로,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확장적 통화정책이나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총수요를 늘릴 필요가 있다.

㉠: IXI 정책금리 인상은 시중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와 투자 등 총수요를 위축시킨다.

㉡: IOI 투자세액 공제 확대는 투자를 자극해 총수요를 늘린다.

㉢: IOI 사회간접자본 투자는 댐, 도로, 교량, 항만, 철도와 같은 공공시설에 대한 투자 및 보수로 이를 확대하는 것은 확장적 재정정책에 해당한다.

㉣: IXI 실업급여 지급액 하향 조정은 가계의 구매력 저하로 이어져 소비를 감소시킨다. 정답 ③

<관련 내용>

경제가 침체에 빠지면 정부는 확장적 재정정책(정부지출 확대, 이전지출 확대, 세금 감면 및 세제 혜택 확대)을, 중앙은행은 확장적 통화정책(금리 인하, 통화 공급 증가)을 시행해 총수요(=소비+투자+정부지출+수출-수입)를 증가시킴으로써 경기부양을 꾀한다.

확장적 재정정책은 예산을 집행하는 일련의 재정 활동인 정부지출, 이전지출 증가와 세금 감면이 여기에 해당



게티이미지뱅크

한다. '정부지출'은 소비성 지출인 정부소비지출과 공공 투자 목적의 정부투자지출로 나뉜다. 공무원 급여나 공공 기관 물품 구매 등은 정부소비지출에, 댐, 도로, 교량, 항만, 철도 등 공공시설 건설 및 증축, 보수 등에 대한 지출은 정부투자지출에 포함된다. 이러한 재정 활동은 총수요를 직접적으로 늘리는 요인으로 총생산 증가에 기여한다. 또 실업급여, 기초수당, 재난지원금, 양육수당 등 가계에 지급하는 각종 보조금은 새로이 부가가치를 창출하지는 않지만 가계의 구매력을 향상시켜 소비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

이처럼 정부가 이미 생산된 자원을 재분배하는 것을 '이전지출'이라고 한다. 정부지출과 이전지출을 더한 것을 '재정지출'이라고 하며, 경기조절은 물론 소득재분배, 사회간접자본 건설, 공교육과 보건, 의료 등 필수 공공재 공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목적으로 행해진다. 이 밖에도 정부는 소득세 감면을 통해 소비를, 법인세 감면과 투자세액 공제 확대를 통해 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

확장적 통화정책은 통화 공급을 늘리고 금리를 하락시키는 것으로 기업의 자금조달비용을 낮춰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중앙은행이 국공채를 매입해 통화 공급을 늘리거나, 정책금리(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인하여 시중금리 하락을 유도하는 것이 여기에 포함된다. 또 지급준비율(예금에 대한 지급준비금의 비율로, 시중은행은 그때그때의 예금인출 요구에 원활히 응할 수 있도록 예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을 인하함으로써 시중은행의 대출 여력을 늘려주는 것도 통화 공급을 늘리는 방안이다. 최봉재 경제경영연구소 책임연구원



시사용어 CHECK

확장적 재정정책
예산을 집행하는 일련의 재정 활동인 정부지출, 이전지출 증가와 세금 감면이 여기에 해당.

확장적 통화정책
통화 공급을 늘리고 금리를 하락시키는 것으로 기업의 자금조달비용을 낮춰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



헛갈리는 문법, 큰 틀에서 먼저 살펴보자

‘참치김밥’은 몇 개의 단어일까?

생각해보자. 답은 다음의 셋 중 하나다.

- ① 1개: 참치김밥
- ② 2개: 참치, 김밥
- ③ 3개: 참치, 김, 밥

선뜻 고를 수가 없다. 전부 맞는 것 같은데? 이럴 수가!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참치김밥’이 몇 개의 단어인지 확신이 없다니, 왠지 모르게 서운하다.

생각만 해도 골치 아픈 국어 문법. 어렵게 겨우 공부해 봤는데 막상 문제를 풀려고 하면 자꾸 헛갈리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도저히 흥미가 붙지 않을뿐더러 쉽게 끝낼 수 없는 과목이다. 하지만 제대로 된 방법으로 접근한다면 투자한 만큼 확실한 결과가 도출되기에 결국은 재미를 붙이게 되는 영역이기도 하다.

‘문법’이란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들을 모두 모아 분석한 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법칙으로 정리한 것이다. 문법을 보다 효율적으로 학습하려면 한 발자국 물러나서 전체 내용을 크게 훑어보며 기틀을 세운 후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좋다. 또한 언제나 개념의 정의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국어 문법의 전반적인 체계에 대한 접근과 기초 개념부터 가볍게 시작해보자.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이라는 용어를 접해보았을 것인데, 용어가 낯설고 무섭게 느껴지더라도 이미 다 알고 있는 개념일 것이니 겁먹지 말자. 요약해서 말하자면 각각은 순서대로 국어의 ‘소리, 단어, 문장’에 대해 공부하는 것이다. ‘국어의 소리’에 대해서는 평소에 생각해본 적이 별로 없을 테니, 이번 회차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를 다루는 ‘형태론’에 대해 먼저 살펴보도록 한다.

‘형태론’에서는 국어의 ‘단어’에 대해 공부한다. 단어란 무엇인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각각의 단어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등을 학습한다. 우선 기본 개념인 ‘형태소’와 ‘단어’의 정의부터 기억해두자. ‘형태소’란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다. 그리고 ‘단어’란 ‘자립할 수 있는 말, 혹은 자립할 수 있는 말에 붙어 쉽게 분리 가능한 말’이다.

정의에서 이미 알 수 있듯이 단어보다 더 작은 단위가 형태소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의 단어를 형태소 단위로 더 쪼갤 수 있다는 의미다. 나아가 형태소는 더 작은 단위로 쪼갤 경우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말이기도 하다. 이 두 가지 정의를 꼭 기억해두도록 하자.

여기까지 잘 따라왔다면 선물을 하나 주겠다. 국어의 단어를 구분해야 할 때 보다 직관적이고 쉬운 방법이 있다. 이는 단어의 정의에서 출발하는 것인데, ‘띄어쓰기’ 단위로 먼저 나눈 후 거기에서 ‘이, 가, 을, 를, 으로, 에서, 은, 는’ 등과 같은 ‘조사’를 더 나누어주면 된다. 이를 통해 ‘자립할 수 있는 말’이란 ‘띄어쓰기의 단위가 된다’는 의미가

고, ‘그에 붙어 쉽게 분리가 가능한 말’이란 한눈에 찾아낼 수 있는 조사를 의미한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이제 앞서 다루었던 ‘참치김밥’을 통해 단어와 형태소의 개념을 이해해보자. ‘참치김밥’에는 단어가 몇 개 있을까? 여기에서 다시 보는 단어의 정의, 잊지 말자. ‘자립할 수 있는 말 또는 자립할 수 있는 말에 붙어 쉽게 분리가 가능한 말’이다. 더 쉬운 방법으로는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구분한다고 앞서 설명했다. 그렇다면 정답은 ①번, ‘참치김밥’, 즉 하나의 단어로 이해해야 한다.

무언가 이상하다. ‘참치’랑 ‘김밥’으로 나누고 싶은 본능이 마구 일어난다. 혹은 어쩌면 ‘참치’랑 ‘김’이랑 ‘밥’으로 나누고 싶기도 하다. 왜일까? 우리의 본능은 왜 정답과 거리가 멀까?

답은 ‘형태소’라는 개념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참치’와 ‘김’과 ‘밥’은 모두 각각 형태소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참치’와 ‘김밥’이 아닌 ‘참치’와 ‘김’과 ‘밥’이라는 것이다. 이쯤에서 형태소의 개념을 다시 기억해볼까?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 그렇다. ‘참치김밥’을 나누되 의미가 훼손되지 않을 때까지 구분하면 ‘참치, 김, 밥’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에서 더 나누어 버리면, 예를 들어 ‘참’과 ‘치’로 나눌 경우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므로 형태소 단위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또 다른 예시를 통해 더 확실히 이해하고 넘어가자.

‘밤하늘의 별빛’에는 단어와 형태소가 각각 몇 개 있을까?

- ① 2개: 밤하늘의, 별빛
- ② 3개: 밤하늘, 의, 별빛
- ③ 4개: 밤하늘, 의, 별, 빛
- ④ 4개: 밤, 하늘, 의, 별빛
- ⑤ 5개: 밤, 하늘, 의, 별, 빛

우선 단어부터! 띄어쓰기 단위로 크게 나누면 ‘밤하늘의’ ‘별빛’이 되고, 여기에서 ‘조사’인 ‘의’를 더 나누어주면 단어 단위의 구분이 된다. 즉 ‘밤하늘, 의, 별빛’으로 구분되는 3개의 단어가 있다. 이번에는 형태소로도 나누어보자.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이므로 ‘밤, 하늘, 의, 별, 빛’인 5개의 형태소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다.

생각보다 재미있고, 할 만하지 않은가? 문법이 지겹고 어려운 이유는 보통 무작정 다 외우려고 들기 때문이다. 잊지 말자. 문법은 언제나 거시적인 시각에서 큰 틀을 먼저 봐야 한다는 점, 그리고 개념의 정의를 반드시 정확히 이해하고 접근해야 한다는 점! 이번에 다룬 ‘형태소’와 ‘단어’의 정의까지 기억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다.

메가스터디강사



이수민 강사의
국어 클리닉



- 1 문법 공부, 큰 틀을 먼저 살펴본 후 세부적인 내용으로.
- 2 형태소란,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
- 3 단어란, ‘자립할 수 있는 말, 혹은 그에 붙어서 쉽게 분리가 가능한 말’



have만 잘써도...자연스러운 영어 문장 똑딱

쉬운 동사일수록 제대로 활용하기가 어렵다. 흔히 '가지다'라는 의미로만 알고 있는 have 동사를 그 외의 다양한 문맥 속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원어민처럼 자연스러운 문장을 구사할 수 있을 것이다.



주혜연 강사의
영어특강

have의 활용법 1 : 감정 표현

동사 have는 감정을 표현할 때 자주 사용된다. 예를 들어 guilt(죄책감), love(사랑), fear(두려움), respect(존경), doubt(의심) 등의 다양한 감정 명사와 함께 쓰일 수 있다. 다음 문장을 영어로 표현해보자.

[해석] 그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

아마 대부분 다음과 같은 생각을 거치게 될 것이다.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 Their fear is growing big.

실패에 대한 두려움: Their fear about failure

▶ Their fear about failure is growing big.

하지만 이번에는 동사 have를 활용해서 다시 문장을 작성해보자.

그들은 커지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They have a growing fear

실패에 대한 두려움: fear of failure

▶ They have a growing fear of failure.

이처럼 감정 표현을 위해 동사 have를 사용할 경우 훨씬 간결하면서도 자연스러운 문장을 완성할 수 있다.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그 결정이 여전히 의심스럽다'라는 문장에 도전해보자. '우리는 의심스럽다'는 동사 have를 사용해 We have a doubt로 표현할 수 있으며, 여기에 '여전히'라는 의미는 형용사 lingering(오래가는)을 추가해 We have a lingering doubt about the decision이라는 문장을 완성할 수 있다.

have의 활용법 2 : 신체 증상

동사 have는 감정 표현뿐 아니라 신체 증상을 나타낼 때도 유용하게 쓰인다. 예를 들어 I have a runny nose(콧물이나와) 혹은 I have a sore throat(목이 아파)와 같은 신체 증상들도 모두 동사 have를 사용해 표현할 수 있다. 이제 다음 두 문장도 영어로 표현해보자.

[해석] 다리에 쥐가 났어.

아마 '쥐'를 뭐라고 표현할지 고민하다가 지레 포기했을지도 모르겠다. 근육이 긴장하며 일시적으로 조이는 듯한 통증을 느끼는 증상을 영어로는 cramp라고 표현한다. cramp라는 표현을 알고 있던 학습자라면, 동사 have를



짱GPT

활용해 My leg has a cramp라는 문장을 작성했음에도 모르겠다. 이때 사람을 주어로 하면 훨씬 자연스러운 영어 문장을 완성할 수 있다.

▶ I have a cramp in my leg.

have의 활용법 3 : 능력(재능)과 성격

우리는 흔히 '소유의 동사 have'라고 하면 물건을 소유하는 것만 떠올리지만, 성격적 특성이나 능력 또한 소유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다음 문장을 영어로 옮겨보자.

그는 음악에 대한 뛰어난 감각이 있다.

He has까지 자신 있게 적은 다음, 감각이라는 단어에서 잠시 고민하다 아마 sense를 떠올리고는 'He has a great sense about music'이라는 문장을 완성했을 거라 생각된다. 하지만 영어에서는 청각적으로 뛰어난 감각을 표현할 때 'a good ear'라는 재밌는 어구를 사용한다. 'He has a good ear for music'이라고 하면 음악에 대한 뛰어난 감각을 소유하고 있다는 의미를 간결하게 전달할 수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너는 색채에 뛰어난 감각이 있네'라고 말하려면, 'a good eye'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You have a good eye for color라고 이야기하면 된다. influence(영향력)나 experience(경험)를 나타낼 때도 동사 have를 함께 사용할 수 있으니 기억해두자.

그는 성미가 급하다. ▶ He has a quick temper.

그녀는 고집이 세다. ▶ She has a stubborn streak.

그는 너그럽다. ▶ He has a generous heart.

이번에는 성격적 특성을 동사 have를 사용해 표현해보자. 예를 들어 급한 성미(quick temper), 강한 고집(stubborn streak), 너그러운(generous heart) 등은 동사 have와 자주 함께 쓰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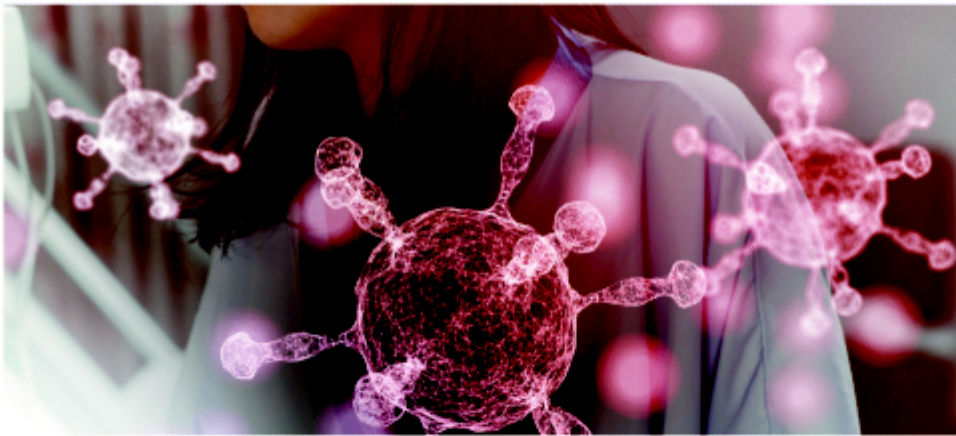
이투스강사



- 1 감정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동사 have
- 2 신체 증상을 말할 때 사용하는 동사 have
- 3 능력이나 재능, 성격을 말할 때 사용하는 동사 have



로마도 멸망시켰다...작지만 위협적인 바이러스



게티이미지뱅크



이승후 강사의
과학탐구 특강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을 우리는 모두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다녔고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이 빠르게 일어났다. 현재 다행히 엔데믹 상황이지만, 사실 코로나보다 무서운 바이러스는 지금도 우리 근처에 존재하고 있다.

세균보다 작아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는 어떻게 발견됐을까. 1892년 드미트리 이바놉스키는 담배 모자이크병의 병원체를 발견하기 위해 이 병에 걸린 담뱃잎의 즙을 짜서 미세한 여과기에 통과시켰다. 이 기술은 당시 세균을 분리하기 위해 예전부터 사용한 방법이었다. 그가 세균 여과기를 통과한 여과액을 담뱃잎에 바르자 담배 모자이크병이 발생했다. 그러나 그는 이 병원체가 세균보다 작다고 결론을 내리는 대신 여과기가 불완전하다고 추정했다. 그 후 1898년 마르티누스 베이에링크는 이바놉스키의 실험을 반복하고 담배 모자이크병 병원체가 미세한 여과기를 통과할 뿐만 아니라 한천 겔을 통해 확산할 수 있음을 알게 됐다. 그는 이 병원체를 액상 전염성 바이러스라고 했는데, 이것이 나중에 바이러스로 불리게 됐다.

이제 바이러스 특징에 대해 알아보자. 바이러스의 모습은 매우 다양하며 그 크기가 세균 여과기를 통과할 만큼 작다. 또 유전 물질이 단백질 껍질에 싸여 있어 세포보다 구조가 훨씬 단순하다. 바이러스는 생물체 밖에서는 물질대사 기능이 전혀 없는 결정체로 존재하지만, 핵산을 가지고 있고, 세균이나 동식물체 내에서는 증식할 수 있으며, 돌연변이도 가능하다. 이러한 바이러스 특성 때문에 생물과 무생물의 경계에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바이러스는 감기, 소아마비, 후천면역결핍증(AIDS) 등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인류 역사상 사람에게 해를 가장 많이 끼친 바이러스는 무엇일까. 사람들은 대부분 에이즈를 일으키는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HIV)를 떠올리겠지만, 실제로는 천연두 바이러스다. 로마 제국을 멸망하게 했고, 16세기 멕시코

의 아즈텍 문명이 소수의 스페인 침략자에게 무릎을 꿇은 것도 천연두 바이러스 때문이라고 한다. 또 전 세계 인구의 사망 원인 중 10% 정도가 천연두 바이러스인 적도 있었다. 걸리면 죽거나 곰보 자국과 같은 심한 상처가 남는 이 무시무시한 천연두는 영국 의사 에드워드 제너가 발견한 백신이 널리 보급된 이후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다. 사실 천연두 바이러스를 이용한 면역법인 인두법은 제너 이전에 알려져 있었지만, 인두 접종으로 인해 오히려 천연두에 걸려 죽는 사람이 종종 발생했다. 제너는 안전한 우두(소 천연두)를 면역 물질로 사용하는 우두법을 개발해 천연두 예방에 크게 기여했다.

천연두 바이러스는 1979년에 이르러 멸종된 것으로 알려졌다. 천연두가 멸종된 이후 천연두 바이러스 표본을 보관하고 있던 러시아의 모스크바와 미국의 질병통제센터에서는 1999년 의도적으로 천연두 바이러스 표본을 완전히 없애려고 했다. 그러나 이 계획은 AIDS와 같은 질병을 퇴치하는 실마리를 천연두 바이러스에서 얻을 수 있고, 일단 멸종시키면 되살릴 수 없으며, 또 같은 질병이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할 때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이 때문에 천연두 바이러스 표본은 파괴되지 않고 보관돼 있다.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은 감염된 사람의 호흡분비물, 소화 분비물, 혈액 및 상처 등을 통해 바이러스가 숙주 몸 밖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일어난다. 감염된 사람이 접한 음식물에 접촉하거나 감염된 물건을 만진 후 그 손이 입에 닿았을 때, 감염된 사람과 직접적인 접촉이 있을 때 감염된 사람으로부터 배출된 바이러스가 직접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 전염돼 새로 증식할 수 있다. 사람의 피부 표피 세포는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을 막을 수 있지만, 피부에 상처가 나거나 주사기를 잘못 사용하면 감염될 수 있다. 따라서 손을 깨끗이 씻고 음식을 끓여 먹는 것으로도 바이러스 전염을 막을 수 있다.

이투스강사



- 1 바이러스는 세균보다 작아 세균 여과기를 통과한다.
- 2 바이러스는 유전 물질이 단백질 껍질에 싸여 있다.
- 3 바이러스는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이다.

내년 SKY 수시전형 53% 이상 수능최저 본다

2025~2026학년도 주요 대학 수능 최저학력기준 신설 현황

학년도	대학	전형	기준
2025	연세대	추천형	2개 등급 합 인문 4, 자연 5 (영어 3등급)
2025	고려대	논술	4개 등급 합 8 (경영 5)
2025	한양대	추천형 (교과), 논술 (한양인터칼리지)	3개 등급 합 7
2026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의치한약)	3개 등급 합 4
2026	이화여대	고교추천	2개 등급 합 5
2026	한양대	논술 (전 모집단위)	3개 등급 합 7

2026학년도 주요 대학 내신 등급별 환산 점수

대학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고려대	100	96	92	86	70	55	40	20	0
서강대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성균관대	100	96	90	80	65	45	20	10	0
연세대	100	95	87.5	75	60	40	25	12.5	5

* 성균관대는 국수영사과 기준임.



남윤곤 소장의
대입 완전정복

2025 수능이 한 달여 남은 시점, 예비 고3은 본격적으로 수험생이 됐다는 마음가짐으로 2026학년도의 주요 대입 이슈를 미리 알아두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대학은 점수에 맞춰 간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미리 준비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에 따라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 2026학년도 대입 핵심 이슈를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완벽 해부해보자.

수능최저, 교과점수 산출 등 학생부전형 주요 사항 체크

2026학년도 수시전형의 비중은 79.9%로 80%에 육박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입시에서 정시를 목표로 한다고 해서 수시모집을 배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 2026학년도에는 2025학년도에 이어 수시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전형이 확대된다. 2025학년도 교과전형에서는 연세대 추천형과 한양대 추천형, 종합전형에서는 한양대 추천형과 서울시립대 학생부종합, 고려대 논술전형에서 수능 최저를 신설했다. 주요 15개 대학 기준 2025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수능 최저를 적용해 선발하는 인원은 2024학년도 대비 3.1%포인트 늘어난 45.4%로 절반가량에 해당했다.

2026학년도에는 더욱 늘어나 이화여대 고교추천, 경희대 네오르네상스(의치한약), 한양대 논술전형이 신설돼 46%에 해당되는 인원을 수능 최저를 적용해 선발할 예정이다. 특히 수능 최저를 적용하는 비율은 SKY에서 53%가 넘고, 서강대-경희대 수준의 대학에서는 약 47%로 상위 대학일수록 수능 최저 적용 비율이 높은 편이다. 따라서 상위권 대학 진학이 목표라면 수시에서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시에서는 학생부전형 비중이 매우 높다. 따라서 교과 등급별 점수를 살펴보고 나의 점수는 어떤 대학을 목표로 하는 것이 유리한지, 앞으로 남은 기간 어느 수준으로 내신 성적을 올려야 할지 판단해야 한다. 내신 등급 차이가 크게 떨어지는 구간은 그 대학에서 학습하는 데 요구되는 학업 수준이라고 판단하는 구간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가령 경희대, 성균관대 교과전형은 3~4등급 간

차이가 10점 이상으로 4등급이 포함되면 총점에서 크게 불리할 수 있다.

수시는 입시 결과 참고할 수 있지만 정시는 변수 있어

2025학년도에는 의대 정원 증원, 자연계 수능 지정과목 폐지, 무전공 신설 등 기존과 다른 큰 변화로 과거의 입시 결과를 참고하기 어려운 해다. 그렇지만 2026학년도 대입의 큰 틀은 2025학년도 대입의 변화사항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2025학년도 입시 결과를 참고할 수 있다. 대학 홈페이지에 2025학년도 대입 결과를 발표하는 것을 확인하거나 대입설명회에 참석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이는 수시에 국한될 수 있는데 2026학년도에도 2025학년도에 이어 정시에서 변화가 예상된다.

먼저 주요 대학에서 2025학년에 시작된 '다군' 선발 확대 추세가 지속된다. 한양대는 한양인터칼리지전형을 통해 60명을 선발하고, 서강대는 AI기반자유전공 35명을 정시 다군을 통해 선발하는데, 상위권 대학이 많이 포진돼 있지 않아 상대적으로 경쟁이 매우 치열한 다군 선발이 상위권 대학 중심으로 확대되며 추가 합격, 경쟁률 등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면서 기존 입시와 다른 판도를 보일 수 있다.

본격적 대입은 시작됐다는 생각으로 고3 모드 돌입할 것

막상 고3이 되면 매달 치르는 모의고사와 비교과 마무리 등으로 제대로 된 전략을 세우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앞으로 남은 기간 학생부를 분석하고, 목표에 따른 전략을 어느 정도 세워놓아야 한다. 특히 학생부전형이 목표라면 고3 1학기 성적의 비중이 매우 큰 편이기 때문에 잘 받는 것이 중요하다. 고2 내신을 잘 마무리하고, 남은 기간 고3 내신을 미리 공부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수능 및 논술 준비도 미리 할 수 있다. 내신 공부에서 사고력과 깊이 있는 이해가 수능과 논술 학습이기에 때문에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개념이 있다면 고3이 되기 전에 확실하게 학습해 두면 좋을 것이다.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장

수능 한달... 50분마다 일어나 스트레칭하세요



게티이미지뱅크



유수중 교수의
청소년 건강 토크아보기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쌀쌀해진 날씨와 조급해진 마음 탓에 외부 활동이 더욱 줄어들고 운동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책상 앞에만 앉아 있으면 근골격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1. 수험생 최대의 적, 허리 통증

수험생들이 가장 자주 겪는 근골격계 문제는 허리 통증(요통)입니다. 척추는 서 있을 때보다 앉아 있을 때 약 2배 더 많은 압력을 받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자세까지 나쁘다면 척추에 더 큰 부담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수험 기간에 나타나는 허리 통증의 대부분은 구부정한 자세로 오래 앉아 있거나, 책상에 엎드려 잠을 자거나, 몸을 기울여 턱을 괴는 등 잘못된 자세에서 비롯됩니다.

2. 다리 꼬지 마~ 다리 꼬지 마~

다리를 꼬고 앉거나 무거운 가방을 한쪽 어깨에만 메는 습관은 척추 변형이나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은 허리를 구부정하게 만들고, 척추가 균형을 잃어 한쪽으로 기울어져 척추측만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척추측만증이 발생한 경우 상태를 관리하기 위해 자세 교정과 척추 치료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3. 스트레칭은 내 친구

허리와 목 통증은 집중력을 방해하기 때문에 바른 자세 교정이 중요합니다. 앉을 때 엉덩이를 등받이에 붙이고 허리를 곧게 세워 어깨부터 골반까지 일직선이 되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부 시간을 갑작스럽게 늘리지 않고, 충분한 수면을 통해 근육을 이완시키는 것도 필요합니다. 책상에서 50분마다 일어나 전신 스트레칭을 하면 근육의 긴장을 풀어 통증을 개선하고, 혈액순환과 집중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칭은 허리와 목을 천천히 돌리거나 옆구리를 늘려주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 목 스트레칭은 손을 턱에 대고 밀어 올리며 10-15초 유지합니다. 모든 동작은 천천히, 반동 없이 부드럽게 시행해야 합니다.

4. 손목 통증엔 '손목 당기기 스트레칭'

수험생들은 계속 펜을 잡고 글씨를 쓰며 손목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필기는 겉보기에는 덜 부담스러워 보이지만, 짧은 시간 안에 손목 저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손목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정중신경이 압박을 받아 손목터널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요즘은 손글씨보다 마우스나 키보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 또한 손목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마우스와 키보드 사용 시 반복적인 움직임과 지속적인 손목 고정으로 정중신경에 압박을 가해 손목 저림과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손목 스트레칭과 휴식이 필요하며, '손목 당기기 스트레칭'이 효과적입니다. 한쪽 팔을 뻗고 손끝을 아래로 향하게 한 뒤 반대 손으로 뻗은 손을 눌러 15초간 당겨준 후 반대 방향으로도 반복하는 방법입니다. 이 스트레칭은 손목 부상을 예방하고 의사에 앉아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5. 뇌 활동에 좋은 수험생 운동

한시가 중요한 시점에 괜히 시간과 체력을 낭비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운동을 통한 근육 발달은 수험생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치료에 큰 도움이 됩니다. 꾸준한 근력 운동은 척추와 관절 주변 근육을 강화해 잘못된 자세로 인한 허리와 목의 통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쿼트와 같은 하체 운동은 하체 근육을 강화하여 오래 앉아 공부할 때 발생하는 허리 통증을 완화하고, 근육의 균형을 맞춰 근골격계 질환 발생을 줄여줍니다. 또한 운동을 통해 근육량이 증가하면 신체가 보다 효율적으로 혈액을 순환시켜 근육의 긴장을 풀고 피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로 인해 수험생들은 집중력 저하를 방지하고, 더 건강하게 학습에 전념할 수 있게 됩니다.

책상서 구부정한 자세

다리 꼬고 앉거나
가방 한쪽으로 메면
근골격계 문제 생겨

전신 스트레칭 꾸준히
혈액순환·집중력 향상

질질끄는 금융투자세... 동학개미만 '분통'



쉽게 풀어쓰는 경제뉴스

최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과 유예를 두고 정치권에서 논쟁이 활발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한 당론을 확정 짓지 않았는데요. 이재명 당대표 등 지도부는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하기는 어렵다'는 주장에 힘을 실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경우 8·18 전 당대회 기간 금투세 유예론을 피력한 바 있고, MBN '정은갑의 집중분석' 인터뷰에서 "다른 나라에 금투세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은 하면 안 돼' 이런 정서가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실상 유예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2025년 도입 예정이던 금투세가 자꾸만 유예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금투세가 뭐길래

금투세란 주식, 채권, 펀드 같은 금융상품에서 얻은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소득에 세금이 거의 없거나, 일부 고소득자에게만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금투세가 도입되면 소위 '개미'라고 불리는 소액투자자 등 더 많은 투자자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정부가 금투세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소득의 공평한 과세입니다. 지금까지는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비해 세금이 적었습니다. 이는 목돈으로 금융 투자를 해 돈을 불리는 고소득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금투세를 통해 공정한 세금을 부과하려는 의도입니다. 둘째는 정부의 재정 확보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금투세 시행 시 약 1조 6000억원의 세수가 확보된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세금을 통해 나라 살림을 꾸립니다. 우리나라는 점점 고령화되고 있어 연금이나 의료비 등 복지 관련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더 많은 세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투세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셋째는 자본시장의 선진화입니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금융 투자에 대한 과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주식을 1년 미만으로 가지고 있다가 팔면 높은 세율로 과세를 하지만, 1년 이상 보유하면 더 낮은 세금을 냅니다. 일본은 금융 투자 이익에 대해 20%가 넘는 세금을 부과하며, 손실이 났을 때는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왼쪽 다섯째)가 지난달 24일 열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경 건의서 전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투세의 장단점

금투세는 장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소득을 공평하게 과세하고 고소득자들이 금융 투자로 얻은 이익에 세금을 부과해 부의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금이 늘어나면 정부의 재정도 늘어나 또 다른 복지를 위해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도 명확합니다. 세금 부담이 늘어나면 투자자들은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기보다는 해외 주식에 투자하려는 성향이 강해질 것입니다. 이는 국내 주식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중 과세 문제가 존재합니다. 현재 주식시장에서는 주식 거래를 할 때 차익을 얻든 손실이 나든 거래 금액에 대해 증권거래세가 부과됩니다. 주식 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와 금투세를 부과하게 되면 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 투자 이익에 대해 금투세라는 이중 과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앞으로의 방향성은

금투세는 소득의 공평성을 높이고 정부 재정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개인투자자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해외 사례처럼 세율을 조정하거나 손익통산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금투세를 둘러싼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정부는 투자자들의 목소리와 시장 상황을 반영한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김도연 인턴기자



사진렌즈 속 세상읽기

파타고니아 하늘에 뜬 '금반지'... 환상적 우주쇼



이스터섬과 남반구 남단 일부 지역에서 개기 일식이 관측됐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는 갈릴레오 갈릴레이 천문대는 이날 오후 아르헨티나와 칠레에 걸친 파타고니아에서 태양-달-지구가 일렬로 늘어선 지구에서 보기에 태양이 달에 가려지는 일식을 볼 수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지역에서는 달이 지구에서 다소 멀어 태양의 가장자리 부분이 금반지 모양으로 보이는 '금환일식'이 관측됐다. 현지 언론은 수백 명이 일식을 직접 보기 위해 파타고니아로 몰려들었다고 보도했다. 주위가 어두워지자, 사람들이 "환상적"이라는 탄성과 함께 서로 포옹하거나 노래를 부르며 '우주쇼'를 만끽했다고 매체들은 전했다. 거대한 모아이(Moai) 석상으로 유명한 칠레 이스터섬(현지명 '라파 누이')에서도 금환일식이 관측됐다. 연합뉴스



청소년 SNS 규제 논의 필요

광남중학교 2학년 노윤영

10대들이 많이 사용하는 인스타그램이 미성년자 보호 기능을 도입했다. 전 세계적으로 미성년자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이 급물살을 타면서다. 세계적 SNS 기업 메타가 발표한 ‘인스타그램 자율 규제 방안’은 청소년을 범죄 대상이 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최근 청소년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이버 괴롭힘, 유해 콘텐츠 노출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SNS 사용 과정에서 드러나면서 논의가 활발해졌다.

지난 몇 년간 청소년들의 SNS 사용이 급증하면서 이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청소년들은 쉽게 SNS에 접근할 수 있지만 공개 계정을 유지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뿐만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과의 무분별한 소통으로 인해 사이버 괴롭힘이나 성희롱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자율 규제 방안에 따르면 10대 계정 이용자는 이미 팔로워하고 있는 계정과만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 또한 선정적인 게시물과 같은 민감 콘텐츠를 볼 수 없고 알고리즘 추천도 제한된다. 정부 차원에서도 청소년의 온라인 활동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청소년들의 심야 시간대 게임 접속을 막는 ‘셧다운제’에 실패한 경험이 있다 보니 많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독서습관 들여야 문해력 향상

광남중학교 2학년 김수민

우리나라 초·중·고등학생의 연간 종합 독서량은 34.4권으로 2019년보다 약 6권이나 감소했다. 또한 종이책으로 읽는 학생들보다 전자책으로 읽고 있는 학생 수가 많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시대가 변한 만큼 학생들의 독서 형태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학생들은 웹툰과 웹소설, 만화책도 독서의 범주라고 인식한다.

학생들이 책을 읽지 않아 문해력이 떨어진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책이나 신문보다는 디지털 매체를 통해 정보를 접하면서 문해력이 감소했다. 영상을 통해 필요한 정보만 받아들이고 빠르게 읽고 넘어가는 것에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웹툰과 웹소설, 만화책 등은 독서에 해당하며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는 웹툰이나 웹소설 역시 독서의 범주라고 생각한다. 매년 독서량이 줄어드는 추세 속에서 만화책, 웹소설을 통해서라도 다양한 어휘력과 간접경험을 쌓게 되고, SNS 및 쇼츠 영상보다는 문해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독서를 할 수 있는 시간은 필요하다. 학교 교육에서부터 독서의 양을 늘려 배경지식과 문해력을 길러 줄 수 있는 다양한 독서활동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성장기 건강 위협하는 카페인

태전중학교 2학년 우하람

한 번쯤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앞두고 벼락치기 공부로 하느라 밤을 새워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청소년은 밤을 새울 때 카페인 음료를 마시곤 한다. 그러나 카페인을 과다 섭취할 경우에는 불안, 초조, 가슴 두근거림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성장기의 청소년이 카페인을 과잉 섭취할 경우 더 심각할 수 있다. 카페인은 뇌를 각성시켜 졸음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늦은 저녁에 커피, 에너지음료 등을 마시면 불면증에 빠지거나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 생활 부적응 및 우울증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정기영 대한수면연구학회 회장에 따르면 청소년기 수면 부족은 학습 능력에 문제를 일으키며 비만의 위험을 높이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

청소년기 카페인을 과다하게 섭취했을 때 생기는 문제는 분명하기 때문에 카페인 과다 섭취를 경계해야 한다. 몸무게가 60kg인 청소년 기준 카페인 하루 권장량은 150mg이다. 이는 커피 음료 2잔, 카페인 음료 2캔만 마셔도 초과할 수 있는 양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잠이 올 때는 카페인 음료보다는 가벼운 운동이나 스트레칭을 하는 등 건강한 방법을 찾아보자.



병역특례 남발에 형평성 우려

광남고등학교 1학년 이예은

1973년 국위 선양을 이유로 예술·체육인이 경력 단절 없이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특례를 주는 제도인 병역 특례가 도입되었다. 하지만 오늘날 현실과는 동떨어져 시대에 맞지 않는 지적이 제기된다.

첫째, 형평성 문제이다. 방탄소년단(BTS)은 노래와 춤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알렸다. 하지만 한류 열풍의 주역이라는 점을 근거로 병역 특례를 적용할 경우 넷플릭스에서 초히트를 친 ‘오징어게임’ 출연자부터 월드컵 챔피언십에서 수상한 국내 프로게이머에게까지 모두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닐까. 둘째, 병역 자원 부족이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22년 0.78명에서 2023년 0.72명으로 0.06명 감소했다.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으며 적정 병역 규모를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 돼가고 있다. 셋째, 병역 의무 회피가 증가할 수 있다. 병역 특례제도로 인해 군 복무를 대신하는 대체 서비스를 수행하는 병역 특례자들이 늘어날 경우 군 복무를 회피하려는 동기가 강화될 수 있다.

국방의무의 형평성이 중요시되는 현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병역 특례는 적합하지 않다.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와 자유 수호를 위해서는 군인이 꼭 필요하다.

공인번호 : 기획재정부 제2021-201호

등록번호 : 2012-0277호

49회

탄매경 TEST

시험일

2024년 11.30(토)

접수기간

10.21(월)~11.18(월)

자격명 : 경제금융이해리인증시험(탄매경 TEST) | 자격의 종류 : 국가공인민간자격(A), (A, B) / 등록민간자격(C, D)

응시료 : 2만원 | 환불규정 : 정기접수 마감일까지 환불 수 신청 응시료 전액 환불(응급수술로 제외) 정기접수 마감일 이후 환불 불가

발급기관 : 매일경제신문사 | 대표사 : 장대환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90(매경미디어센터)

연락처 : 02-2000-2459 | 홈페이지 : <http://mktest.org> | 이메일 : mktest@mk.co.kr